

FTA확대와 새로운 환경변화

양계업은 연말로 갈수록 닭 사육 수 증가 때문에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를 보면 그간 사활을 걸고 생산비 인하에 매달려온 노력에 비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점점 더 FTA가 확대될 전망이어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지난 5월에 유입된 메르스로 소비가 감소하여 많은 손실을 입어 후유증도 남아있다. 해외 여행객 감소는 물론 각종 행사까지 줄줄이 취소되는 바람에 외식 비중이 높은 계란과 닭고기의 소비도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추석과 같은 특수기에 출하가격이 오히려 약세권을 형성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엎친 데 덮친다'고 지난 9월 14일 오리농장에서 HPAI가 발생하여 김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겨우 메르스 여파가 종식 단계로 접어들어 정상화 되는가 싶었는데, 예기치 않은 사태로 불황을 벗어날 해법을 찾느라 바쁜 양계업계에 고민만 더 키워주었다. 지금까지 양계업은 생산량 조절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많다. 특히 UR협상이 표면화 될 때에는 수입에 대한 우려로 생산량을 줄이거나, 수출국에 근접하도록 생산비를 낮추



김 용 화

한국농식품직업전문학교 겸임교수
/본지 편집위원

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었다. 결국 생산량 감축보다 생산비 절감에 초점을 맞추어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UR협상은 1993년에 완전 타결되었으니 무려 20년 이상을 생산비 절감에 공을 들여온 것이나 진배없다.

이 외에도 양계업은 가끔 수출로 불황을 타개 하려고 노력했던 적도 있다. 동아일보 1981년 6월 23일자에는 계란·병아리의 수출(輸出)에 대한 기사가 실려있어 소개한다. ‘그 해 5월과 6월에 홍콩과 사우디아라비아에 각각 27만개의 계란을 수출했다. 물량도 적고, 수출가격도 낮아 적자였지만 계란의 생산량 증가로 불황이 심화되어 출혈 수출을 하였다. 이전에는 중국(당시 중공)이 정치적 혼란으로 1976년에 수출이 중단되어 우리가 대신 홍콩에 갈색란 개당 35원(CIF), 사우디아라비아에 백색란 개당 30원(FOB)에 수출하였다. 농가 수취 가격 45원보다 무려 개당 15원씩 적자를 감수하고 불황 타개를 위해 수출하였다. 적자는 한국사료협회와 대군사양가들이 메워주었다. 낮은 가격에 수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중국의 생산비가 국제시세였기 때문이다. 이웃 일본은 가공란을 수입하는 바람에 우리가 가공설비가 없어 제품을 생산하지 못해 수출의 돌파구를 열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수출시장이 열려도 가격이 맞지 않으면 계속 수출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덧붙인 내용이었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꼭 34년전에 실제 있었던 일이다.

지금의 닭 사육수수 증가와 FTA확대로 불황을 염려하는 현실과 너무나 흡사하다. 수출을 하려 해도 국제 시세에 못 맞추는 것도 비슷하다. 양계업은 생존을 위해 일찍 생산비 절감을 당연지사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나온 것이 1992

▲ 계란수출 관련 동아일보 1981년 6월 23일자 기사

년에 ‘UR협상 대책’인데, 생산비 10% 절감이 목표였다. 그런데 결과는 1981년 대란 생산비 33원에 비해 2012년에는 127원으로 약 3.8배가 높아졌다. 반면에 IEC의 자료를 보면 미국은 1962년 30원에서 2012년 80원으로 약 2.7배 상승에 그쳤다. 또한 사료비도 우리는 1966대비 2012년에 22배, 미국은 1962년 대비 2012년에 5.8배가 상승하여 차이를 더 벌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애쓴 보람은 빛을 잃어 생산비 절감이라는 명제 또한 기억에서 멀어져 버린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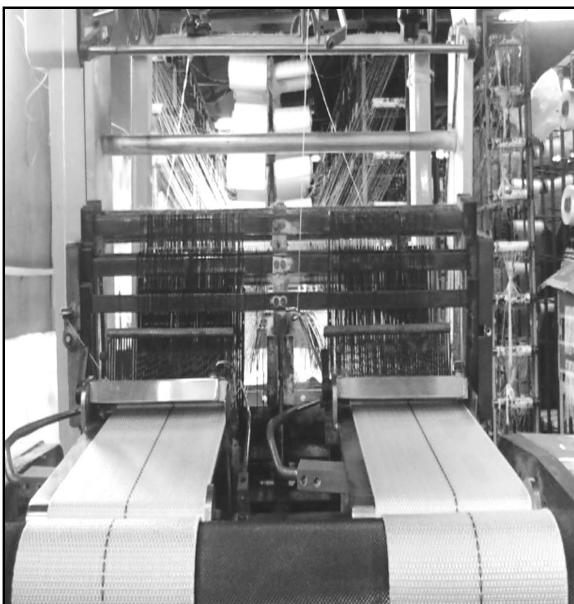
이 외도 생산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물가를 들 수 있는데, 1981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상승율이 157.5%를 초과했다. 그리고 FTA 확대에 따른 수입 관세인하, 환율변동(1980년

초 710원, 2012년말 1,080원), 유가상승 등도 생산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요인이 되고 있다. 즉, 경쟁력을 높이는데,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대폭 많아졌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제 FTA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작용하고 있다. 어느덧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권역별 또는 상호간에 무역협정을 맺고 자원을 주고 받는다. 그래서 얼마 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는 바람에 우리에게 또 다른 압박이 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다름아닌 국회에 계류중인 중국 또는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협정 비준 때문이다.

비록 우리 양계업은 수출국에 비해 생산비가 약간의 간극은 더 벌여졌다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생산비 절감 운동을 벌여왔기 때문에 현재의

자급을 유지시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협정이었다고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매년 양계업의 생산기반에 가해지는 압박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농축산물의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FTA발효를 앞두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UR협정이 시작될 당시처럼 경쟁력 강화에 다시금 매달려야 한다.

그 동안 우리는 고 환율에도,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자동화에도, 규모 증가에 의한 유통의 병목현상에도 울분을 삼키며 극복하기 위해 수 없는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이처럼 양계인의 땀과 정성이 밑받침이 된 양계업이 향후 20년 후에 지금의 상황과 닮지 않게 하려면 먼저 환경 변화부터 직시해야 한다. **양계**



세대섬유

집란벨트 생산전문

품목

집란벨트(100,105mm)
집란벨트 고리

농협 : 356-0171-2888-93(예금주 : 윤기진)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 583-1
전화 : (031)856-3546 FAX : (031)856-4251
H·P : 019-489-3510 E-mail : ykja2124@hanmail.net